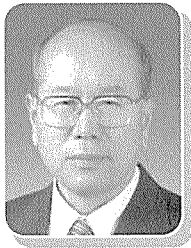


## 시를 읊으며 문헌정보학의 길을 가다

- 玄村 金世翊 교수에 얽힌 이야기 -



글·최 성 진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玄村(현촌)은 좀 특이한 인물이었다. 필자는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하며 때로는 그의 길동무되어 함께 걸으면서 학문을 논하고 정담을 나누었다. 평생 꽃 가까이서 새소리 들으며 살기를 고집하던 玄村. 1995년 초 그가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난 후 벌써 십년 세월이 지났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던가. 그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도 많이 변하였다.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은퇴하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낯선 신세대 일꾼들이 들어왔다. 이 젊은이들은 “김세익 교수가 누굽니까” 묻는다. 다른 과거사와 함께 그도 주위에서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그는 그렇게 간단히 잊혀져서는 안될 인물이다. 그는 한국 문헌정보학을 창

건한 주역 중의 한 사람이고, 문헌정보학교육 분야에서 당대의 많은 동료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또 1950년대에 김두홍, 이규범, 조재후, 박태신 등과 함께 경남 지역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입하여 새교육을 실현 하자며 외치고 나섰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운동의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와 함께 일하였거나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널리 소개하여 그의 삶과 업적이 한국 문헌정보학계에 오랫동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속담에 “물을 마시는 자 우물 판 사람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필요성에 따라 필자가 먼저 이 글을 쓴다. 그러나 필자

가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보다는 그와 더 가까이, 더 오래 지낸 가령 박희영, 손성우, 정병완 같은 분들이 펜을 들었다면 더 좋은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다만 좀 떨어져서 본 玄村의 모습,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 등을 몇 가지 추려서 여기에 적어보려고 한다.

### ● ● 도서관학과장협의회에서

1973년 여름 서울에 있는 네 개 도서관학과간에 도서관학과장협의회라는 연합체가 구성되고 이 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원 대학인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네 학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원탁회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협의회에는 회장이나 사무실 같은 것은 없었고 번갈아 맡는 그 달 당면교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고 회의 경비도 부담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의 기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거의 없는 설립 초기의 상황에서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가 다른 대학 학과들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우리 나라 실정과 요구에 맞는 최선의 도서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던 것이 이 협의회 설립 취지였으나 실제로 네 사람이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놓고 핏대 올리며 토론을 벌인 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모임 이후 각 대학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보고하고 시간이 남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걱정할 후 간단한 점심을 먹고 헤어지곤 하였다. 몇 해 후 협의회는 본래 주어졌던 임무를 대강 마친 것으로 보고 스스로 해체되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협의회와 관련된 다른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1990년 정년식 및 『圖書館의 窓』 증정식에서의 玄村〉

아마 이 협의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살아 있는 당사자 세 사람 외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협의회가 당시 소임을 다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문헌정보학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이 분야에서 교제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던 필자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장으로 玄村을 비롯한 정필모, 정형우 등 세 선배 교수들 이 모임을 통하여 가까이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이 협의회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 뿐이다. 협의회의 첫 모임부터 마지막 모임까지 네 회원의 인적 구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때 필자가 보기에 玄村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는 매사에 많이 생각하고 언제나 그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원칙 문제에 대하여는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협의회가 모임이 있었던 어느 날 정필모, 정형우, 필자 세 사람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아침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 날 아침 그는 연구실로 가는 길에 교정에서 평소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동료 교수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일보 해직기자 복직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부탁을 완곡히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탄원서에 정치적 내용은 없다는 동료 교수의 설명이 있었지만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할 수 없고 또 ○○일보 기자 해직 문제에 자신이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동료 교수와의 정의를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분명하게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그는 ○○일보 기자 해직사건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공연히 아침부터 불쾌한 일을 당한 셈이다. 이 사건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사리를 원칙에 따라 분별하며 평생 거짓없이 곧게 살려고 한 그의 깨끗한 성품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한 날에 회원 넷이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곤 하였으나 얼마 후에는 방식을 바꾸어 그 날 당번교 회원의 집에서 모이고 점심도 그 집에서 차리기로 하였다. 점심을 차리는 수고를 떠맡게 된 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었지만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찻집 종업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시간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회원들의 가족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정이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날 경비를 대학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회원들이 모두 결벽증이 있어 비록 공식적으로 허락된 일기는 하지만 큰 실적도 없는 모임을 위하여 대학에 경비를 청구해야 하느냐 하며 고민하던 그들에게 이 변경은 하나의 구원이었다.

어느 초가을 날 우리 네 사람은 차례에 따라 아현동에 있는 玄村의 집에 모였다. 다소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옆으로 산을 끼고 있는 단층 가옥으로 우리는 안내되었다. 그리 크지 않고 아늑한 이 집은 걸치레 없이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잘 어울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다. 집안에 들어서면서 우리 일행은 방안이 온통 새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필자도 평생 새를 키우고 있으므로 단지 집에서 새를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그저 시골에서 새소리 들으며 자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달래기 위함인데 비해 그의 경우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았다. 그에게 새소리는 우주 생명의 신비한 속삭임이요 천상 세계의 음악이었다. 그가 남긴 어느 글 속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저 아름다운 나무와 꽃 사이를 재잘거리며 날아가는 산새들도 뒤에 남겨둔 채,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우리는 언젠가 차마 감을 수 없는 눈을 감고 죽어야 한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새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슬픈 것이었다. 새소리를 예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간의 삶에서 새의 동반 가치를 玄村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필자 같으면 그 집에서 굳이 꽃을 가꾸거나 새를 키우지 않았을지 모른다. 바로 옆이 산이요 숲이므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철 따라 피는 가지각색 꽃을 보고 숲 속에 사는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집으로 이사 왔고 지난여름 폭우 때 산이 무너져 집 일부에 피해가 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산이 좋아 떠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뜰에 나서면 꽃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가 굳이 집에서 꽃을 가꾸고 많은 새를 키우는 것은 그 소중한 가치들을 그의 일상생활 속에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편입시키려는 뜻에서였다. 눈앞에 전개되는 혼탁하고 부정현실 속에서 어질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던 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그가 정성 들여 가꾼 꽃과 나무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낙원의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다.

玄村은 “목요회”라는 모임의 회원이었다. 이 모임은 그의 고향 모교인 함흥고보에서 동문 수학과 월남하여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목사, 의사, 교수, 사장, 문인 등 인텔리 친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매주 목요일 종로에 있는 단골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친선 모임이었다. 그는 이 모임에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상 그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의 거의 모두였다. 30여 년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는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도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의 교우 범위는 아주 가까운 몇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도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았고 그가 남긴 글 속에서도 시인하고 있다. “사

회생활도 직장생활도 … 힘겨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친구들과의 사귄에 있어서도 신경이 소모되는 일이 많다.”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점점 하기 어려워진다. 학생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적당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같다. 현명하게 처신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듯도 한데 내 경우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여 늘 손해만 본다.” 그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관, 가치기준, 도덕기준,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너무 순수하고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 고전에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기 지덕의 빛을 싸 감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에게 그런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티없이 깨끗한 그에게 먼지를 바르고 오염된 속세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것이 가능하였겠는가.

玄村은 속물 근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경멸하였다. 교양이 없고, 위선을 일삼고, 자만하고, 아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경멸감을 내비쳤다. 특히 정치인을 싫어하였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세계가 단순치 않다는 것은 알지만 요즘처럼 자신의 영달을 앞세우면서 민족의 존망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노라면 정치인들은 결국 제일 밑바닥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어. 어려운 시기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는 짓들은 자기와 자기편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으니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나. 6.25 동란과 월남전에서 죽은 젊은 녀들에게 이 사람들은 무어라고 변명할 지 모르겠어.” 그는 울분을 토하곤 하였다.

## ● 문헌정보학 교수로서

玄村은 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 겸 사서교사로 재직 중 그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몇 사람과 함께 그 때까지 도서관 불모지였던 중등학교에 현대적 개념의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새교육”을 해보자는 운동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부설 도서관학당에 가게 되고 그것이 배경이 되어 1962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가 되었다. 1990년 2월에 정년퇴임 하기 까지 그는 이 대학에서 28년간 문헌정보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무슨 까닭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긴 재직기간 중 그는 대학의 중요한 보직을 맡은 일이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는 사실은 그가 평소 대학의 학·처장 직은 교수에게 무익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혀 왔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쓴 일도 있다. “대학의 고위 보직을 맡는 것이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최선의 길은 아니다”(김두홍, 정보의 세계: 김두홍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1993. 16쪽). 이러한 그의 부정적 보직관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을 것이므로 대학 내 보직 변동이 있을 때마다 후보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대학내의 낮은 수준의 실무 보직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1982년에 그는 인문과학대학 교학과장직을 맡고 2년 동안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단과대학의 교학과장이 전체 대학 수준의 간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위상이 그런 자리이므로 그 직책을 맡는다고 다른 교수들의 눈치 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 대학의 녹을 먹는 교수라면 그가 아닌 누구라도 그런 보직까지 마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학과장 재임기간 중 그가 교학과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하는 말을 필자는 여러 번 들었다. 업무를 철저히 챙기는 모양이었다. 그가 남긴 글 속에 이 시기의 심정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이제 보직도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조심스럽게 성실하게 근무할 생각이다.”

玄村은 대학에서 도서인쇄사, 도서관조직관리, 학교도서관, 도서관과 사회, 문헌정보관리, 일본서지 등의 과목을 가르쳤고 앞의 네 과목 수업에 참고할 네 개의 교과서도 출판하였다. 이 책들은 당시 다른 대학에서도 널리 교재로 채택되었다. 매사에 욕심이나 강한 집념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그는 교수직 수행 면에서도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가령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전공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밤 새워 강의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명강의라는 평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지 않았다.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다할 뿐이었다. 그는 교수이기 전에 시인이며 선비였다. 그도 말했듯이 “홀연히 세속에서 물러나 閑雲野鶴을 벗삼으며 悠悠自適하는 것(곧, 하늘에 한가히 떠도는 구름과 들에 절로 나는 학을 벗삼으며 속세를 떠나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아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선비의 즐거움이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세속적 명예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시인의 세계에 경쟁이나 성공 같은 것이 없으니 그의 눈에 그런 것들은 다 속물들의 허사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문헌정보학 교수직으로는 밥그릇이나 챙기고 시인 행세나 하면서 도서관 뜰을 산책하다가 남긴 것 없이 떠나간



(1965년 London 大學 圖書館學 修學)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그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른 교수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말하자면 그늘진 곳의 일들을 많이 맡아서 정성을 쏟았다.

한 예로 국가의 영상자료 보존 관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문헌정보 전문가로서는 그가 유일하게 참여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1977년에 문화공보부에서는 국내 최초의 필름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을 찾고 그 용역기관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해줄 전문가를 물색하고 있었다. 몇 사람이 먼저 부탁을 받았으나 낮은 분야이고 정부와 관련된 인기 없는 일이라서 모두 사양한 것 같다. 玄村은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역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문헌정보학 교수 중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필름도서관 설치 과정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일기 속에 이렇게 쓰고 있다. “문공부 Film Library의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계속되었는데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다 … 내년에 계속할 때에는 둘 다 그만두게 해야 하겠다”(김세

익, 낙우송: 현존 김세익 교수 유고집, 1995. 109쪽).

필자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장 직을 맡고 있을 때 그에게 대학원 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주도록 부탁한 일이 있다. 두툼한 박사학위 논문 원고를 읽으며 몇 차례의 심사회에 대비하는 데는 언제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그런 부탁은 교수들이 선뜻 승낙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저런 핑계를 들으며 거절당하지만 그는 한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외부의 몇 교수에게 부탁하여 성공하지 못한 경우 필자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든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분을 좇아 행동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마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 ● ● 여학생들에게 희망을 걸고

玄村의 경력은 단순하다. 마산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 겸 사서교사로 11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교수로 28년 재직한 것이 그의 경력의 거의 전부이다. 이 경력을 보면 그가 교육자로서 평생 가르쳤으나 이 학교 저 학교로 여러 번 옮겨다니지 않았고 그가 가르친 두 학교가 다 여학교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가 여학교에서만 가르친 것이 자신의 희망이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단지 그의 숙명이었는지 알 길은 없다. 사실이 어느 쪽이든 그는 여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평소 매우 만족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국민에 비하여 민주사회 시민의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 수준이 낮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신뢰가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평화롭고 미소를 나누는 사회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의 주역인 주부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여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것은 미래의 가정 주부들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일 외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평생 여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 나름의 사명에 충실하였다.

그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그의 문장력과 여성교육에 대한 남다른 정열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이 대학의 신문 주간 정충량 교수의 추천으로 1966년에 "이대학보"의 고정 칼럼 "상록탑"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후 7년 동안 이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예비 여성지도자들과 예비 주부들에게 주는 순수하고 감동적인 글들을 발표하였다. 보통 1년 후 길어도 2년 후에는 필진이 교체되는 대학신문 칼럼을 7년 동안이나 계속 담당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중 이 대학보에 발표된 글의 대부분이 그의 수상집 『旅愁』(김세익, 여수: 김세익 수상집, 선경도서, 서울, 1978) 속에 수록되어 있다. "여수" 속에서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다.

구라파에 와 보니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가난해 보였다.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후 좋고 물 좋은 우리 나라에서 살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팔자나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환상이다. 가난의 도시 칼카타... 거리를 걸을 때 나에게 무슨 자신 같은 것이 생기는 듯했다. 우리도 신념을 갖고 노력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고 혈통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에 차고, 그러나 희망 있는 내일을 향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25동란 중의 공포가 아직 기억 속에 생생하고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렵고 미래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1960년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는 평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걸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더욱 사랑스럽고 소중하였다. 그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나타내는 순진하고 총명한 행동 하나 하나에서 그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보며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 "여수" 속에 수록된 "車中禮拜"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기사는 1967년 여름 그가 인솔교수로 학생들과 동해안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보고 느꼈던 이야기이다.)

낙산사를 떠나서 화조대를 거쳐 대관령 아흔 아홉 고개를 넘었을 때 반장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예배를 보자고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렇게도 명랑하고 잘 놀고 어떤 때에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느껴지던 그들이 었건만 반장이 인도하는 차중 예배에는 모두 엄숙하다.

학생들은 뺨 속에서 찬송가책을 꺼냈고 어떤 학생들은 성경책까지 가지고 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짐이라고는 한 개라도 덜고 싶었을 여행길에 찬송가책과 성경책까지 가지고 온 학생들을 볼 때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속에서 모은 헌금은 대관령 밑에 있는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에 갖다 주었다. 이 지성, 이런 교양이 이화 학생들에게 있다. 이처럼 착하고 똑똑한 이화의 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햇살같이 따스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1966년 이화여대 제자들과 孤雲寺 수학여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역의 재목으로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그는 남녀 평등이나 가정 민주화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주제를 논한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의 사소하나 잘못된 관습을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주력하였다. “슈샤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대학보”에 발표된 그의 글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 글은 당시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 근처 미화원 가게에서 신고온 자기 구두를 가게에서 빌려주는 운동화로 바꿔 신고 들어가는 관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적은 것이다.

정문 앞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길가에 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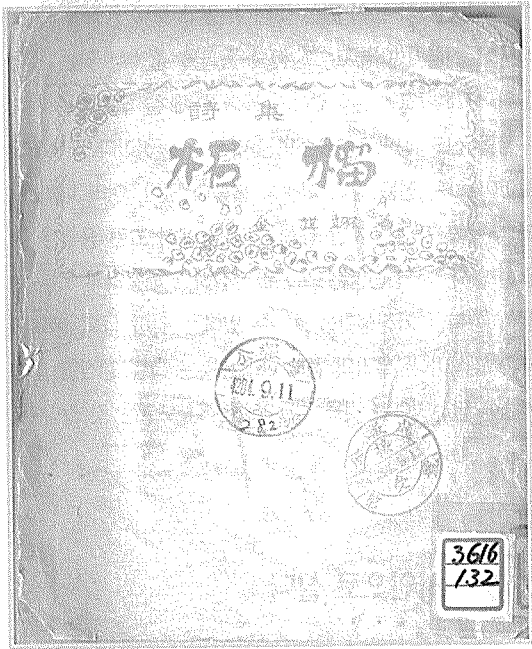
화 수백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이다. 알고 보니 등교할 때 학생들이 신을 벗어놓고 그 흰 운동화들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신고 학교에 들어갔다가 돌아갈 때 잘 닦아놓은 자기 구두를 신고 집으로 가는 모양이다 …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아야 하는 정문 앞이 미관상 볼품이 없다. 여러 나라 여러 대학에 가 보았지만 대학 정문 앞에서 그런 풍경은 본 일이 없다. 자기 신발은 스스로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잔잔한 마음 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위의 글. 30쪽)

### ●● ● 평생 시인으로 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玄村은 문헌정보학 교수이기 전에 시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소문을 타고 주위에 알려졌으며 그도 그렇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생 사람들로 부터 시인으로 불리고 시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였다. 그는 시인으로서 늘 시를 쓰려고 하였고 그래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 많은 시를 발표하지는 못하였다.

그가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시 출판된 시집 『石榴』(대한문화사, 1951. 105쪽)가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시집이었다. 시집을 내겠다는 그의 집념은 그의 일기 속 여러 곳에 보인다. 1980년 8월 어느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금년내에 시집을 낼 계획인데 제대로 되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기에 기필코 완수해야 하겠다.”(김세익, 낙우송: 현촌 김세익교수 유고집, 1995. 116쪽) 그러나 그는 끝내 두 번





〈1951년 시집 『石榴』 표지〉

책 시집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실 그는 종이에 시를 쓰는 시인이라기보다 삶 속에 시를 쓰는 시인이었다. 그는 꽃을 가꾸고 새를 키우는데 열중하였다. “줄곧 산을 생각하였고 산을 찾아다녔고 산과의 대화로써 고달픈 ... 인생을 달래며 살아온”(위의 글. 145쪽) 사람이었다.

현대 도서관에서는 시인사서를 찾기 어려우나 고대 도서관 사서들은 주로 시인, 평론가, 문법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사서 칼리마쿠스는 당대의 저명한 시인이었다.

그는 그가 관리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소장된 80만권의 그리스 문헌에 대하여 서목을 작성하라는 왕명에 따라 『피나케스』를 완성하였다. 『피나케스』는 120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된 방대한 그리스 문헌 목록이었다. 이것은 그 때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훌륭한 목록

이었으며 이용자들에게 그 도서관의 방대한 장서 내용을 간결하게 보여준 최초의 본격적 검색 도구로서 칼리마쿠스의 시인적 통찰과 그의 부하 직원들이 기울인 노력의 소산이었다.

17세기 중반에 영국 왕실도서관의 관장이 된 존 듀리는 사제이며 시인이었다. 관장으로 부임한 지 1년 후에 그는 『개혁적 도서관장(Reformed Library Keeper)』이라는 저서를 내어 당시 그 내용을 둘러싼 많은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 책 속에서 그는 그 때까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과 관행들을 비판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종교개혁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서관도 사회의 특수 계층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 마땅히 장서 이용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일반 시민의 아낌과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책은 사람들의 인격을 높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도구이며 사서는 단지 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학문의 안내자요, 문화의 전달자요, 이용자와 책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개자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모든 도서관은 제한 없이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듀리의 논리와 주장은 주로 그의 시인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지속적 주장으로 왕실도서관은 그 후 부분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도서관은 옛날부터 전통과 관습에 의존하여 장서 조직과 봉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로 인하여 도서관이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에서 시인들의 조언이 특히 유용한 때가 바로 그런 때

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인들은 상식과 관습을 벗어나 그 원형의 본질을 투시하므로 관습의 제약을 벗어나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봉사의 모형을 대담하게 그려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玄村이 한국의 현대도서관 발전 초기 단계에 우리와 함께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시인들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훌륭한 시인들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있어 감동을 받고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 자신 시인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玄村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사실 누구에게 배워서 시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타고난 시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로 제출한 그의 동시를 보고 담임선생님이 '이거 네가 지은 거냐'고 물으며 격찬하여 그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한 일이 있었다. 선생님은 그의 동시를 학생들에게 몇 번이나 읽어주었다.

이 작은 사건이 그를 문학소년으로 만들고 한 평생 시를 생각하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중병'에 걸리게 하였다. 중학교 4학년 때에는 전국 글짓기 현상모집에 장원으로 뽑혀 운동장에 도열한 전교생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상장과 상품을 전해주고 치하의 말씀을 해주고 자랑스럽게 그 글이 신문에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그가 시인되기를 결심하게 한 두 번째이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문학은 그의 숙명이 되어버렸다.

1951년에 시집 『석류』를 내고 《문예》지의 추천도 받았다. 김춘수 등과 함께 어울리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였고 정식으로 시인 명부에도 등록되었다. 그러나 천재는 한 가지 일을 계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자신은 "천재가 아니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고 학교 선생을 하던 20년 동안 시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지금도 시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어정쩡한 세월만이 흐르고 있다"(위의 글, 19쪽)고 하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시에 대한 강렬한 의욕만큼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고민을 토로(吐露)하였다. 그러나 평생 꽃을 보면서 감탄하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소름 끼치는 희열을 느끼고 진정 따스한 시선으로 이웃을 보면서 그의 시인적 내면생활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玄村이 처음부터 시 쓰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초에는 신문 잡지에 많은 시를 발표하며 시우(詩友)들과 활발하게 교제하였으나 갑자기 시 쓰기를 중단하였다. 시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시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에는 많은 시를 쓸 수 있었으나 시를 조금씩 알게 되자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이 커서 군에 가게 되었을 때 참으로 오래간만에 '입대'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썼다. 6.25 동란 때 전방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그가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었으니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그는 시 쓰는 어려움을 이렇게 말한다. "시가 정서적 도취의 소산이 아니고 지성의 구조물이라는 것, 시가 지식과 상식의 단계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깔린 의식의 심층에서 출발한다는 것... 을 의식하면 좀처럼 시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 같은 것이겠지만 시만이 나의 인생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대로의 시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태우고 있으니 숙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한국기독교 대표시선집, 서울, 종로서적, 1980. 50쪽)

과거를 회고하며 꿈 같은 세월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玄村은 실제로 평생을 꿈속에서 살다 간 영원한 로맨티스트였다. 위에서 언급한 '입대'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

**교회당 종소리가 아침 바람에  
흘어지는 그 아득한  
연륜 속에서**

**너의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의  
또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듣고 있다.**

그는 그의 시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 생활에서도 과거를 더듬는 삶을 살았다. 그의 상념 속에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들던 교회당 종소리가 평생 사라지지 않았다. 높고 푸른 북국의 하늘을 흐르던 그 종소리는 그의 시의 고향이며 순박하고 경건한 낙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지 아니 들리는지 말없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또 고향에 갔느냐고 친구들은 그를 놀리면서 웃었다. 그들의 말이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다. 결국 곱고 깨끗한 삶만 고집하던 그가 먼지 나는 땅에 발을 붙이고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며 부와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경쟁하는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낙원과 속세의 갈등 속에서 玄村은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불편한 심기가 그의 "낙우송 일기" 여기 저기에 표출되어 있다.

... 시내에 나갔는데 하루종일 기분만 상하고 돌아온 것 같다. 처음으로 찾아가 새 박물관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떠들어대서 박물관에 온 기분이 나지 않았다. 식당에 들렀더니 여종업원들의 거친 매너에 거의 절망하다시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택시를 타도 기분이 나빠지니 이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임에 틀림없다(김세익, 낙우송: 현존 김세익교수 유고집, 선경도서, 160쪽).

앞에서도 뒤에서도 집을 짓고 있는데 주인이나 인부들이 너무도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여 본의 아니게 몇 차례 화를 내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뒷집 인부들의 야만적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지 말아야 하는데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하루가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으니 나는 분명히 불행한 인간임에 틀림 없다(위의 글, 165쪽).

그의 불행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의 탓이었겠는가. 세상이 부정하고 악한 탓이었다.


● ●  
● ● **글을 맺으며**

누구나 가족을 사랑하지만 玄村의 가족 사랑은 그 정도나 표현 방식에서 좀 특별하였다. 당초에는 필자가 나름대로 본 그의 가족 사랑 이야기를 이 글에 붙이려고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지 몰라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빼기로 하였다. 아무튼 부인과 자녀들, 특히 서른 한 살의 젊디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간 둘째 아들에 대한 그의 애절한 사랑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시인에게 잘 어울리는 분야라고 말하기 어려운 문헌정보학 분야에 들어와서 운명이 그렇게 지시한 것일까 뜻밖에 한국의 현대문헌정

보학 창건을 주도한 인사들과 만나게 되고 젊은 시절 그들과 함께 정열을 쏟으면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기존 모형이나 원칙 같은 것이 거의 없던 초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그의 시인적 비전과 통찰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 강의하여 학생들을 집중시켰고 학자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늘 집안 어른 같은 따스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응석을 다 받아 주었다. 당연히 그는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꼭 그렇게 한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설날을 전후해서 그의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은 언제나 세배 오는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줄이 이어졌다. 그의 일기를 보면 정년 퇴임 후에 세배 오는 사람과 연하장의 수가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였지만 그 줄어든 수조차 필자나 주변 교수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놀라운 것이었다. 세배 오는 사람 중에는 30년 전에 졸업한 마산여고 출신 중년부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참스승으로 살다 간 그의 인격을 증거하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玄村은 어린 시절 함경남도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뒷산에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림 같은 마을에서. 이 마을 뒤편에는 일요일마다 10여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당이 있었고 교회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적막한 마을의 공기를 가르곤 하였다. 소년은 종소리에 끌리어 교회에 다니며 “선한 사마리아인” 등 성경 속의 이야기와 이웃 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교훈을 들었다. 자신도 고백했듯이 그의 “연약하고 과거 회상적인” 성격과 그의 시의 영원한 고향은 이와 같은 그의 성장환경에서 형성되었다. 그가 유년시절과 소년

시절을 보낸 그 조용하고 목가적인 산촌의 생활은 그 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고향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고향은 바로 혼탁한 현실 속에서 그가 평생 추구한 낙원이었다. 평화롭고 순박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향을 떠들며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은 더욱 그리운 것이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고향 마을 회복은 늘 그의 삶 전체였으며 삶의 궁극적 목표였던 것이다. 

◆ 玄村 金世翊 교수 略歷 ◆

1924年 12月 28日 咸鏡南道 洪原郡 出生  
 延世大學 英文學, 圖書館學 修學  
 London 大學 圖書館學 修學 (교수 재교육과정)  
 1950-1961 馬山女高 教師 (司書教師)  
 1962-1990 梨花女大 教授 (圖書館學)  
 1963 國家公務員 採用試驗委員  
 1967 京畿道 獎學委員  
 1973 韓國圖書館協會 理事  
 1973 文教部 教科課程審議委員  
 1985 韓國圖書館協會長  
 1990 梨花女大 停年退任  
 1994 '자랑스런 서울시민 600인'에 선정

〈주요 著書〉

1951 詩集(시집) 石榴  
 1978 隨想集(수상집) 旅愁  
 1971 圖書館과 社會  
 1977 圖書館 組織 經營論  
 1982 圖書, 印刷, 圖書館史  
 1990 학교도서관 조직과 운영